

Beauty and Happiness: The Most Sacred Language

Jean-Michel Othoniel

Last May, in a historical first, a work of contemporary art was added to the collection of the Palace of Versailles. The title of the artwork is “Les Belles Danses” (The Beautiful Dances). With its cool jets of water shooting out as if dancing, this fantastic fountain of glass beads was created by the French contemporary artist Jean-Michel Othoniel.

text by Han Yeah-Joon, photos by Kim Young-Ah

In 2011, the French government held an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rebuilding the Water Theatre Grove in the gardens of the Palace of Versailles, which had been destroyed by a storm. The following year, the honor of being chosen for this project was bestowed upon the team of landscape designer Louis Benech and artist Jean-Michel Othoniel. Who is Jean-Michel Othoniel? He is the man who had already adorned his home city with a monumental work that dazzlingly transformed the Palais Royal – Musée du Louvre Métro Station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Paris subway system in 2000. Othoniel’s choice of placing value on the continuity between past, present, and future, and creating something new through dialogue with the place was then, and is now again outstanding. His glass bead fountain took inspiration from the dancing exploits of King Louis XIV, but it has a dynamic appeal that transcends history.

Othoniel’s signature bead motif is already familiar from his recent works, but this time the theme is not necklaces, but flowers. Flowers bear a wide range of meanings and symbolism, while at the same time literally belonging to the world of nature. Moreover, are they not the most universal symbol of beauty? Othoniel admits that it is vitally important to choose a theme that is intelligible to different cultures, as this enables more

people to enjoy his works: “Over the past 20 years I’ve been traveling the world, studying the culture of each area visited. As a Frenchman living in Paris, I feel that my works should be fully Parisian while also forming a global bond of sympathy.”

Othoniel’s new muse is the lotus. The lotus has the qualities of mystery, opening in the morning and closing at night, and of strength, producing a clean flower even when it grows in mud. Othoniel has focused on this changeability and two-sidedness. During his repeated visits to Korea, while developing the motif for his lotus works, Othoniel became deeply impressed by the Buddhist image of Sakyamuni attaining enlightenment while seated on a pedestal engraved with lotus leaves. This experience has given him a desire to dig into the fundamental and spiritual things that exist beneath surface appearances.

Similar to Baudelaire’s *Les Fleurs du Mal* (Flowers of Evil), the title of Othoniel’s new work, “Black Lotus,” combines two conflicting words. He has also chosen the same title for his solo exhibition of 10 new works, currently running at Seoul’s Kukje Gallery K3 until March 27.

In “Black Lotus,” the glass beads are replaced by a sculpture of continuous, smooth, strong-looking black anodized aluminum. As you walk around the sculpture, the black curves that represent the

lotus petals overlap irregularly to produce a sight that seems always new. Then you begin to perceive the old, repeated lines of beads differently, too. You seem to experience forms retreating into abstraction and sparkle into restraint as your outward-directed gaze moves toward the interior.

Othoniel began to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in 1992, when he exhibited sculptures using wax and sulfur at the ninth «Kassel Documenta» art exhibition. He based the subject matter of those artworks on his own painful experience of losing a lover. His interest was naturally attracted to processes of change, through which something passes from one condition to another, and he thematized the vulnerability of materials that change with the passage of time. That value always came first for him in a beautiful art work. It’s just that in his youth he had to confront and struggle with beauty in order to talk about it, whereas now he has attained the maturity to accept beauty simply as it is. And he puts this rather beautifully: “In our anxious world, what I can do for people is to create beauty. If I can give other people some joy and happiness through my works, I believe there’s nothing more valuable than that.” ●

Photographer Kim Young-Ah captures the warmth and vitality of places around the world through eyes as pure as a child’s.



아름다움과 행복, 가장 고귀한 언어



장미셸 오토니엘

지난해 5월 베르사유 궁전에서 최초로 영구 소장 목적의 현대 미술 작품을 들었다. 작품 제목은 <아름다운 춤(Les Belles Danses)>. 시원한 물줄기를 춤추듯 뿜어내는 이 환상적인 유리구슬 분수의 주인공은 프랑스 현대 예술가 장미셸 오토니엘이다.

글. 한예준 / 사진. 김영아

여전히 주제에 목걸이가 아니라 꽃이다. 꽃은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는 동시에 자연의 세계 그 자체이기도 하다. 게다가 가장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던가. 오토니엘에게 다양한 문화에서 수용 가능한 주제를 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저는 세계 여행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를 공부했어요. 파리에 사는 프랑스인으로서 저의 작품은 전적으로 파리엔다워야 하는 동시에 글로벌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새로운 뮤즈는 연꽃이다. 연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신비로움과 진흙탕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우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 오토니엘은 이 변화와 양면성에 주목했다. 또한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해 연꽃 작품의 모티브를 발전시켜가던 중 석가모니가 연꽃 잎이 그려진 연화대(蓮花臺)에 앉아

지난 2011년 프랑스 정부는 베르사유 궁전 정원 내 폭풍으로 파손된 ‘물의 극장(Water Theatre Grove)’ 재건을 위한 국제 디자인 공모를 발표했다. 이듬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것은 조경 디자이너 루이스 베네츠와 아티스트 장미셸 오토니엘 팀. 장미셸 오토니엘이 누군가. 2000년 파리 지하철 100주년을 기념해 팔레 루아얄-루브르 박물관 역을 눈부시게 변모시켰으로써 이미 기념비적 작품 하나를 자신의 도시에 새긴 바 있는 그가 아닌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성에 가치를 두고, 장소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오토니엘의 선택은 이번에도 탁월했다. 발레를 유난히 좋아하는 루이 14세의 춤에서 영감받아 시대를 초월하는 역동적인 매력의 유리구슬 분수를 제작한 것이다.

최신작들을 보면 그의 시그니처 구슬 모티브의 등장은

깨달음을 얻는 이미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경험은 그에게 표면적인 것을 넘어 정신성과 근원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검은 연꽃(Black Lotus)>. 보들레르의 <악의 꽃>처럼 상충된 두 단어를 조합한 제목의 신작이다. 신작 10점으로 이뤄진 개인전에서 동명의 타이틀을 내걸었다(3월 27일까지, 국제갤러리 3관). <검은 연꽃>에서 유리구슬을 대신하는 건 빈틈없이 매끄럽고 단단해 보이는 검은색 산화 알루미늄 조각이다. 바닥 위에 설치된 작품의 주변을 천천히 맴돌고 있자니 꽃잎을 형상화한 검은 곡선이 서로 겹치고 어긋나며 매번 새로운 풍경을 제시한다. 그렇게 반복되던 구슬의 라인이 어느 순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형태가 추상으로, 반짝임이 절제됨으로, 외부를 향하던 시선이 내면으로 침잠하는 듯한 경험이다.

오토니엘은 1992년 제9회 카셀 도큐멘타에서 왁스와 유황을 이용한 조각 작품을 선보이며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오토니엘은 성 소수자로서 당시 본인이 겪은 아픈 경험(사랑하는 연인을 잃은)을 바탕으로 존재의 상실, 상처를 주제화했다. 자연스럽게 그의 이목을 끈 것이 사물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변화의 과정이었고, 그는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재료들의 연약함을 재료화했다. 아름다움은 작품에서 언제나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였다. 다만 어린 날의 그가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해 아름다움에 맞서 싸웠다면, 현재의 그는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

“불안한 현실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통해 다른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움과 행복만큼 보편적이고 강력한 언어가 세상에 또 있던가? 제각각의 색으로 빛을 머금고 반짝거리는 오토니엘의 구슬. 우리는 마법에 걸린 듯 그 황홀경을 그저 즐기면 될 뿐이다. ●

사진가 김영아는 파리를 기반으로 <이데아> <더 굿 라이프> <로피시엘> 등과 작업하고 있다. 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계 곳곳의 활기와 따스함을 담아낸다.



Jean-Michel Othoniel, Installation view of «Black Lotus», Kukje Gallery, 2016 / photo by Keith Park / provided by Kukje Gallery